



# 도·의회 추경 기싸움... 예산 조정폭 '관심'

## “세계지질공원의 진수 만끽하세요”

도 세계유산본부, 26~28일 '수월봉 트레일 행사'

앞서 열린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430억 삭감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서도 일부 삭감 논의 오늘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담겼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 의회의 최종 조정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4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의 원활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터 18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등 총 43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상임위는 증액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

원들의 지적이 이어지는가 하면 추경 예산안 심사 기간 제주도와 도의회간 기싸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도 일부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큰 증액없이 대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뤄진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가 추경 예산안을 통해 증액한 4128억원의 10%가량인 430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등 총 430억원을 삭감했다. 4개 상임위는 증액

없이 감액 의견만 제출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4억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1차산업 분야 사업 예산과 관련해 6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볼 수 없는 예산 등이 편성됐으며 지적을 이어왔다. 더욱이 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18일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대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의 지질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일원에서 '수월봉 트레일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세계지질공원트레일위원회 주관으로 한경면, 한경면 이장단협의회,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고산리·2리와 용수리 등이 참여한다. 수월봉 트레일 행사는 26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진다. 개막식 식전행사로 고산리 해녀마을 공연, 민속보존회 공연 등을 선보인다.

지질트레일로는 수월봉 영알길, 차귀도 등 2개 코스를 돌며, 지질공원해설사로부터 제주 자연자원의 가치와 지질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지질 탐방 프로그램, '신의 지문을 찾아서'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이벤트, 동백브러치 및 편백 열쇠고리 만들기, '쓰레기 업 GEO(지오)' 이벤트, '수월한 영수증' 이벤트, 지오 액티비티 '차귀도유람선' 탐방 트레일 이벤트, 고산리 선사유적체험, 지역마을 연계 판매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월봉은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국제적인 화산 연구의 성지(聖地)로,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화산학 백과사전에 수록되는 등 지질학자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질명소다.

한편, 수월봉 트레일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2010년 이후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렸으며, 2022년에는 도민 및 관광객 등 2000여명이 참가한 바 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청년 일상연구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산하 제주청년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 방안을 찾는 청년 일상 연구 사업 'Youth&Study'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일상연구 사업은 제주청년센터가 2019년부터 진행해 온 제주청년정책 대표 연구 공모 사업이다. 연구 주제는 농촌, 건강, 인권, 일자리 등 청년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전 분야다. 제주지역에서 활동 또는 거주하는 청년(만19~39세)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 도내 정치권 5·18 관련 성명 잇따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도당 등 성명

5·18민주화 운동 43주년 기념일을 맞아 제주지역 정당들이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존경을 표하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모진 세월을 살아온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 "지금 우리

의 과제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 민주화운동에 감사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월 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정부·여당의 일원으로 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

운 국민의 나라를 향한 통합과 상생의 길에 솔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논평을 내어 "공통체의 화합과 정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 권력자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항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5·18 민주항쟁은 자연스럽게 제주4·3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처럼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고 헌신한 민중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는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강대해기자

## 들불축제 '속의형 정책개발' 평가를

도, 오늘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개최·논의

제주들불축제의 개최 방식 방향을 논의할 '제주도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9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속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가 개최된다.

심의회는 속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원탁회의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속의형 정책 개발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회는 '제주도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들불축제 건을 속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추진 시엔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속의형 정책개발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는 속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 위원을 공모했고, 위원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들불축제 청구 건을 첫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제주녹색당은 지난달 도민 총 749명의 서명을 받아 '들불축제 속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녹색당은 심의를 앞두고 이날 "들불축제 속의과정은 유명무실했던 속의민주주의 조례가 제대로 실현되는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녹색당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참여의 범위를 제주도 전역으로 설정하고, 제주시장은 도민 전체로 공론화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속의형 정책개발 방식에 대해서 "공론조사나 원탁회의를 통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한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1만5천여 동문의 추억만들기

### 한림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수집합니다!

**제출종류**

- 기고문: 주제는 재학시절 나의 추억, 또는 자유 주제(수필, 시 등) 기억이 생생한 일화, 의미있는 경험과 깨달음 등  
※원고분량: A4 1~2매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옛날 사진, 상장, 통지표 등 (스캔 후 돌려드리거나 역사관 소장)  
[단체 (학급), 행사, 동문 부모님 재학 시절 사진 포함]
- 개인작품: 서예, 그림, 사진 등

**제출방법**

- 기고문 - 한글파일 작성 후 메일 전송 (hallim100th@naver.com)
- 사진 자료 및 작품 - 전화 문의

**제출기한** 2023. 6. 16 까지

**문의전화** 기별 편찬위원(기별 회장, 총무) 010-3225-8301(담당) 010-3690-2451(편찬위원장)

### 2023년도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 컨설팅사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비용** 전액 무료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신청방법** 제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jef.or.kr)에 회원가입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컨설팅신청 분야**

인사·노무분야 (노무사)	세무·회계분야 (세무사)	법률분야 (변호사)
·노동관계 법령상 위법성 진단 및 개선 ·근로시간 분석에 따른 근무형태 조언	·세법 및 관련기준, 지침 등에 대한 위법 해소 상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세 관련 세무 이슈 상담	·기업운영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 제공 ·신청기업의 법률자문 요청에 따른 상담 등 법률서비스 자문

**문의** Tel 064.751-2205-7 / Fax 064.751-2208 / 이메일 jefnomu@jef.or.kr

**제주경영자총협회**

### 그랜드보청기

5월 가정의달 부모님을 위한 선물증정 대 이벤트

① 20만원 상당 삼삼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진자습기(제거제) \*1번 소진시 2번 사용품 제공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